

제 1 교시

국어영역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Low-end

- 이 문제지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전기의 가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유교적 국가의례의 장에서 기능적으로 활용된 언어적 형식이었다. 이는 고려 말의 가요와 구별되는 특수성이며, 문학이 예(禮)와 악(樂)의 틀 안에서 수행되던 제도적 성격을 보여준다. 조선 초에 제작된 가요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의례 절차 속에서 불려졌으며, 그 구조와 표현은 단순한 미적 추구가 아닌, 의례의 규범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이 시기 가요는 곡식의 풍요나 충효의 실천 같은 가치들을 반복적으로 언술하며, 통치 이념을 대중에게 체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 가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가 불렀던 ‘자리’와 그 속에서 요구되던 ‘형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때 자리란 가요가 발생하고 소비된 구체적 상황, 즉 왕실의 제례나 국가의 경축행사 등을 말하며, 형식은 그 자리에 적합하게 선택된 어휘, 운율, 서사구조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 의례적 가요는 특정한 형식의 고정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국초의 대표적인 가요인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은 모두 왕실의 위엄과 정통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표현에는 일정한 수사적 문장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반복은 우연한 문학적 습관이라기보다, 의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서의 일관된 구현이다. 즉 가요가 감정의 자발적 표현이 아니라 정해진 의례 구조 안에서 특정 감정을 반복 재현하는 방식으로 존재한 것이다. 이는 문학이 감정보다는 규범을 담지하는 매체였다는 점을 시사하며, 조선 전기 가요를 단지 ‘작가의 창작물’로 보는 시각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의례적 가요는 집단적 가치와 체제 유지라는 목적 아래 제작되었으며, 의례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가요들은 당대의 ‘예악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예악사상이란 인간의 내면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윤리적 기조로, 예는 행위의 질서를, 악은 정서의 조화를 담당한다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조선 왕조는 예악의 실천을 위한 텍스트로서 가요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종 의례 절차에서 가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어 왕의 탄생일이나 조상에 대한 제향에서 가요는 군주의 덕성을 칭송하고, 백성이 이를 본받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취한다. 가사 내용은 극도로 형식화되어 있어, 감정을 넘어서 이념을 고정된 문장으로 재생산한

다. 이러한 방식은 민중이 의례에 참여하는 동안 가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 이념을 수용하게 되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례적 성격은 가요의 문학적 다양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기도 했다. 일정한 어휘 반복, 정형화된 구문 구조, 서사의 단순성 등은 창작자의 표현 자유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조선 전기 가요는 감정의 개별성이나 서사의 발전보다는 기능적 재현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문학적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례적 가요는 감정보다는 질서, 개별보다는 집단, 창작보다는 구현이라는 문학의 다른 기능을 부각시킨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선 전기의 문학은 단지 개인의 감상이나 미적 추구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정치·윤리적 기획의 일환으로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조선 전기 가요는 왕실 제례나 경축행사 등에서 불렸다는 점에서 특정한 상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② 의례적 가요의 반복적 표현 구조는 당대의 정치적 목적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 ③ 예악사상이란 예를 통해 정서를 조율하고 악을 통해 행동을 제어하려는 정치 철학이다.
- ④ 조선 전기 가요는 감정보다 규범을 표현하는 매체로 간주되어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의도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 ⑤ 국가가 주도한 가요의 제작은 민중의 일상적 정서와 무관하게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의 자발적 발현보다는 정서의 규범화와 반복이 중요시된다.
- ② 정해진 자리와 형식을 통해 구성되어 문학의 독자성과는 일정한 긴장을 형성한다.
- ③ 예악사상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언어 형식으로 활용되었다.
- ④ 서사 구조나 표현 어휘는 각 행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 ⑤ 정치적 이념을 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문학의 기능적 역할이 강조된다.

3.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초 왕실에서는 새 왕이 즉위한 뒤, 궁궐 안에서 ‘선왕의 공덕’을 기리는 의식을 마련하고 그에 어울리는 가요를 제작·공연하였다. 이때 가요의 가사는 당시 왕실이 추구하는 통치 원리와 도덕적 이상을 담도록 명문화되었으며, 악장 형태의 반복 구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

- ① 창작자의 미적 독창성을 담기보다는 기존의 형식을 충실히 따랐을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의례에서 불린 이 가요는 개인의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겠군.
- ③ 반복 구절은 새로운 문학적 실험의 일환으로 가요의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가요의 주제와 내용은 의례 후에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였기에 형식적 고정성이 적었겠군.
- ⑤ 가요의 역할은 의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국한되었으며, 국가 이념과는 무관한 예술적 공연으로 간주되었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시적 순서형 자료란 동일한 대상에게 여러 시점에서 순서형 범주의 응답값을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 회사채의 신용평가 등급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지급 능력 등을 바탕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측정된 순서형 평가 값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료는 시점 간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무시할 경우 모형의 오차가 과대평가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학자들은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GLMM)’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고정 효과와 임의 효과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도입함으로써 공변량이 응답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개체 간 이질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순서형 응답 변수에 특화된 변형으로 ‘누적 로짓 임의 효과 모형’이 사용된다.

이 모형에서는 순서형 응답 변수를 연속형 잠재 변수로 간주하고, 일정한 분계점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관측된 응답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체가 ‘3등급’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였다면 이는 잠재 변수 값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분계점 사이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응답 확률은 공변량과 임의 효과의 선형 조합에 기반해 로짓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다. 문제는 이 확률식이 임의 효과에 대해 적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의 효과에 대한 적분은 대부분 닫힌 수식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수치적 근사법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적분 근사법으로는 라플라스 근사법과 적응 가우시안 구적법(AGQ)이 있다. 라플라스 근사법은 확률 밀도 함수의 최빈값 근처에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여 이차 항까지 근사한 뒤, 이를 정규분포의 형태로 치환하여 적분을 수행한다. 이 방식은 연산 효율성이 뛰어나고 구현이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실제 분포가 정규분포와 다를 경우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적응 가우시안 구적법은 함수의 최빈값을 중심으로 곡률에 따라 구적점의 위치를 조정하여 적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수의 구적점을 이용해 적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나, 연산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데이터에 결측이 존재하여 데이터가 비어있을 때 두 방식의 성능이 반전된다는 점이다. 결측이 없을 경우 적응 가우시안 구적법은 높은 적분 정밀도로 인해 더 정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결측이 존재할 경우, 특히 일부 시점에서 응답이 누락되는 단조 결측 구조에서는 오히려 라플라스 근사법이 더 안정적인 추정을 제공한다. 이는 적응 가우시안 구적법이 구적점의 위치를 데이터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측이 생긴 구조에서는 곡률 추정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측률이 10%에 이르면 AGQ의 추정 편향은 라플라스 방식의 2배 이상까지 증가하며, 변동성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 성능은 개체 수와 반복 관측 수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반복 횟수에서 개체 수가 많을수록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감소하며, 동일한 개체 수에서는 반복 횟수를 늘릴수록 신뢰 구간의 포함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의 효과의 분산 추정이 정교해지고, 이에 따라 전체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변수가 많아질수록 고정 효과와 임의 효과 간의 상호작용 해석이 복잡해지며, 추정치 간의 상관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처럼 누적 로짓 임의 효과 모형의 실제 활용은 수학적 이론

이상의 고려가 필요하다. 결측 구조, 표본 특성, 변수 간 상호작용, 수치 적분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모형의 추정 성능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 요소는 정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구적점 수와 추정 정확도는 직접 정비례 관계를 가지지만, 연산 시간과 효율성은 간접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또한, 결측률과 추정 편향은 직접 정비례 관계를, 반복 횟수와 추정 불안정성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단일한 ‘최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분석 목적과 데이터 구조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형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는 상대 오차 백분율(PRB), 신뢰구간 포함 확률(CP), 추정치의 평균 편차(APRB) 등이 있다. PRB는 추정치의 평균과 실제 모수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며,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CP는 신뢰구간 내에 실제 모수가 포함될 확률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95% 이상일 때 만족스러운 모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분모와 분자의 비교 구조를 통해 모형의 상대적 안정성과 정밀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4.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플라스 근사법은 테일러 급수를 통해 확률 함수를 근사한다.
- ② AGQ 방식은 구적점 수 증가에 따라 계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③ GLMM의 응답 변수는 잠재 연속 변수와의 관계로 해석된다.
- ④ 결측률이 높아질수록 AGQ의 적분 정확도가 개선된다.
- ⑤ 동일 개체 수에서 반복 횟수가 증가하면 추정치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5. 누적 로짓 임의 효과 모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응답 변수가 일정 구간 내 잠재 변수의 값에 따라 범주로 관측된다.
- ② 임의 효과는 개체 간 차이를 반영하는 정규 분포로 가정된다.
- ③ 공변량의 계수와 임의 효과가 합쳐져 응답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 ④ 분계점은 각 시점별로 추정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응답 확률은 로짓 함수를 통해 연속적으로 계산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연구자는 반복 관측 횟수를 5에서 10으로 늘리고, 결측률이 10%인 데이터를 라플라스 근사법과 AGQ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라플라스 방식은 PRB와 APRB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CP는 두 방식 모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GQ의 구적점 수가 높은 경우에도 결측 구조에서는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① AGQ의 정확도는 구적점 수보다는 반복 횟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 ② 결측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AGQ가 라플라스보다 항상 더 우수하다.
- ③ PRB가 작을수록 실제 모수와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CP가 동일하더라도 PRB와 APRB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⑤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 AGQ는 항상 라플라스보다 정확도가 높아진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단순히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와 제도 설계상의 복합적인 고려를 요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개발사업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며, 이 조합은 사단법인임과 동시에 특정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행정청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주체로 간주되며, 그 지위는 단순한 민간단체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실무 절차는 민간 개발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나 규모, 건축 심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설공사의 평당 단가를 중심으로 한 총액계약 방식으로, 설계도서 없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공사비 증액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도시정비법의 제도 설계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 제29조는 시공사의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의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행정적 사전 조건을 포함하는 통합적 행정처분으로서, 계획재량의 대상이 되며 각종 부관이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부관은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사비 증가로 직접 연결된다.

예컨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필수 행정절차 중 하나인 경관심의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은 사업의 건축적·공간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해당 평가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건축 설계 변경을 야기한다. 이는 곧 시공사가 처음 계약 시 제시한 공사비와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의 단초가 된다. 더욱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같은 부담은 사업비 총액에 큰 변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에는 이러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공사비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공사비 검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제도 또한 시공사 선정 시점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다르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가 이후에는 5%를 초과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도 사업 초기 시공사 선정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발생하는 분쟁은 검증을 위한 서류조차 마련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 검증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건축 설계 업무의 진행 단계 또한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설계는 계획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로 나뉘며, 공사비 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기본설계 이후 단계이다. 하지만 현재의 입찰 구조에서는 계획설계 수준의 도서만을 바탕으로 시공사 입찰이 진행되며, 이는 정확한 공사비 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건축 설계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치며 필연적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 증액 요구가 이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현행 제도는 ‘설계 미확정 - 계약 체결 - 설계 변경 - 공사비 증액’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와의 계약 구조 자체도 공사비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도시정비법상의 도급제 계약과 지분제 계약은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며, 지분제 계약의 경우 개발이익의 귀속 구조에서 시공사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와 유사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조합은 본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요구되는 만큼, 시공사와의 관계가 이처럼 대등하거나 종속되는 구조는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은 분명하다. 시공사의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의 법적 근거와 설계의 완성도를 담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은 법적으로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의 문서로서, 공사비 산정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시공사와의 계약도 그에 기반하여 체결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조정이 아닌, 사업 구조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로 평가된다.

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조합은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이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 행정청의 감독 하에 행정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설계변경에 관여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계획에는 주택법, 건축법, 환경법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전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기부채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주요한 부관으로 작용하며, 공사비에 영향을 준다.
- ⑤ 기본설계 단계 이후의 설계도서는 공사비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공고 당시 제공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비 단가를 협의하였다.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물 배치 및 주차장 구조를 변경하였고, 단열 기준을 높이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시공자는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 조합은 아직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

- ① 조합 설립 인가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점이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시공자가 오인하여 추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③ 설계 변경이 법적 요건에 따라 발생했음에도, 계약 체결 시 해당 가능성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발생한 조건 변경이 도급제 계약 구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9. 윗글의 관점과 비교하여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시공자의 조기 선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오히려 조기 선정이 없을 경우, 시공자는 과도한 리스크를 이유로 공사비를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하게 되며, 이는 전체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의 조기 선정은 잘 설계된 계약 체계와 감시 제도가 보완된다면 충분히 유효하다.

- ① 시공사 조기 선정의 구조적 위험을 강조하는 점에서, ㉠은 <보기>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② 설계도서의 미완성 상태가 계약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점에서 ㉠은 <보기>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시공자의 사업 영향력에 주목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와 <보기>가 서로 다르겠군.
- ④ ㉠은 <보기>와 달리 제도 개편의 핵심을 보완 장치의 강화보다는 인허가 이후로의 시기 조정에 강조점을 두겠군.
- ⑤ ㉠와 <보기>는 모두 시공자와 사업시행자의 파트너십 강화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입장이 일치하겠군.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